

국립간호대학생의 지역간 대학생활 적응차이에 관한 연구

최 선 하 (원주전문대학 간호과)

임 난 영 (한양의대 간호학과)

〈目 次〉

I. 서론

II. 문헌고찰

1. 연구동향
2. 용어의 정의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2. 연구도구
3. 자료수집기관

4. 분석방법

IV. 연구결과 및 고찰

1. 지역별 적응차이
2. 학년별 적응차이
3. 적응과 제 변수간의 관계

V. 결론

참고문헌

영문초록

I. 서론

교육이란 인간의 행동특성을 변화시키는 것¹⁾으로서 개인이 지닌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개발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한 인간을 육성하는 것이며, 인간행동에 가치있는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다.

대학의 교육목적이 학문의 발전과 사회가 요구하는 지도적 인물을 양성하는 일이라면, 전문교육 분야의 큰 관심거리가 되는 것은 학생들의 전공학습에 대한 성취도와 적응에 대한 문제이다.

더우기 간호사의 역할이 일차건강관리제공자로 확대됨에 따라 예방에서 재활에 이르기까지 간호의 범위가 다양해 졌다. 또한 건강을 인간의 기본 권리로 생각하고 질적인 건강관리를 요구하는 수

혜자들의 의식변화는 현저하다.

여기에 오늘날 대학교육이 대량생산의 경향을 보이며 날로 확장되는 대학환경속에서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지도성을 지닌 전문간호사로 교육시키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편, 대학생활에서의 적응과 부적응의 문제는 대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 학업성취에 많은 영향을 주리라는 것을 가정할때에 적응의 문제가 가지고있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본다.

적응이란 개체가 자기의 욕구와 환경과의 사이에 조화를 구하며 그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과정을 의미하며 욕구의 만족상태에 이르지 못하면 부적응 상태에 머무르게 된다.²⁾ 부적응의 특성은 자기 존중감이 저하되고 문제해결이나 목표설정 능력이 없거나 비효과적이며, 독립심을 위한 노력이 부족

하고, 미래 지향적 사고가 결여된다는 것이다.

이렇듯 학생들의 적응의 문제는 고급인력을 양성하여 사회에 배출해야하는 대학의 역할을 다하고 특히, 간호전문직의 요구에 적응하도록 준비시키는 간호교육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교육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져 전문직의 질을 보장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한 간호사를 육성하기 위해 생활을 통해 학생들을 이해하고 지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별 대학생활 적응의 차이를 파악한다.
2. 학년별 대학생활 적응의 차이를 조사한다.
3.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본다.

II. 문헌고찰

1. 연구동향

이 분야의 선행연구로는 첫째, 적응에 관계하는 성격특성에 관한 연구로서 자아개념과 적응이 긍정적 관계가 있음을 보고한 논문³⁾,⁴⁾과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탐색한 연구⁵⁾, 적응을 잘한 대학생이 그렇지 못한 학생에 비해 자아강도가 높음을 파악한 보고서⁶⁾ 및 학습의 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욕구 구조를 규명한 논문⁷⁾등과 두번째, 간호대학생의 특성, 태도 및 생활지도상의 문제에 관해 조사한 연구⁸⁾,⁹⁾,¹⁰⁾,¹¹⁾,¹²⁾,¹³⁾, 셋째, 임상교육의 실태조사 및 문제점을 분석한 연구¹⁴⁾,¹⁵⁾, 네번째 간호교육철학 및 교육과정을 분석한 자료¹⁶⁾,¹⁷⁾등을 찾을 수 있었다.

2. 용어의 정의

서봉연¹⁸⁾은 적응이란 환경의 어떤 특정한 요구에 맞추기 위하여 자기자신을 순응시키는 것이라고 하였고, 김¹⁹⁾은 자신의 욕구뿐만 아니라 환경의 욕구도 충족시켜주는 능력이라고하여 심리적 차원에서는 주변환경속에서 살아남기위한 각 개인의 투쟁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Lazarus²⁰⁾는 적응을 두 종류의 과정, 즉, 주어진 환경에 자신을 맞추는 과정과,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환경을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Levine²¹⁾은 개인이 환경의 현실내에서 자신의 통합성을 유지하는 일련의 변화과정이 적응이며 이는 생존의 기본으로서 전체 유기체의 통합성이라고 표현하였다. Shaffer²²⁾에 의하면 적응이란 개체의 욕구와 사회환경과의 조화를 말하며 개인의 생리적, 심리적 욕구를 저해하는 여러가지 환경적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환경의 변화조건에 잘 맞추어 나가는 것을 뜻한다.

이상을 종합하면 적응이란 외적인 환경에 대한 적응뿐만아니라 안정과 안녕을 의미하는 내적인 힘과 상태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적응은 대학생활에의 적응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학교생활과 전공에 대하여 만족하는 수준을 뜻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설립주체에 따른 대학운영상의 변수가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서울 및 전라남·북도 소재의 국립대 간호학과 재학생 중 서울 232명, 지방 328명, 총 560명이 본 연구의 대상자가 되었다. 이를 학년별로 살펴보면 대학생활에 비교적 적응하는 시기로 보이는 2학년 187명(서울:78명, 지방:109명)과 전공기에 있는 3학년 193명(서울:82명, 지방:111명) 및 임상실습을 거친 4학년 180명(서울:72명, 지방:108명)이다.

2. 연구도구

연구도구로 사용된 설문지는 간호대학생이 대학내 사회화과정을 통해 전공학문에 적응하는 정도와 긍정적 인간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항목으로써 이와 관련된 제반 문헌을 토대로 구조화되었다. 이는 간호대학생 20인에 의한 사전조사와 간호학 교수 2인에 의한 내용타당도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수정보완하여 실제 조사에 이용하였다.

대학생활 적응도는 Likert 5점 척도로써 '매우 불만족스럽다' 1점 부터 '매우 만족하다' 5점까지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이며 만족한 대학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뜻한다.

3. 자료수집기간

1991년 3월 11일 부터 3월 23일 사이에 설문지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학년을 중심으로 학년별 기수 혹은 우수를 무작위 추출한후 연구자료로 이용한 설문지는 서울 103매(88.8%), 지방 143매(87.2%), 총 246매(87.9%)이었다. 이는 부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한 결과이다.

4. 분석방법

모든 자료는 SPSS에 의하여 대학생활 적응과제 변수별 차이는 t-test, ANOVA로, 제 변수간

관계의 방향과 관계의 정도는 Pearson 상관계수로, 대학생활 적응의 예측변수는 회귀분석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고찰

1. 지역별 적응차이

대학생활에의 적응에서 서울과 지방 간호대학생 간에 차이가 있는지 조사하였다.

표 IV-1-1에서 볼수 있듯이 서울학생의 평균 적응점수는 6.38, 지방은 6.52로 지방간호학생의 점수가 다소 높았지만 두 집단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t = -0.76, df = 244, p = N.S.$).

표 IV-1-1 간호대생의 지역별 적응차이

특성	구분	인수	평균(점수)	표준편차	t값	자유도	유의도
적응	서울	103	6.38	1.55	-0.76	244	0.449
	지방	143	6.52	1.31			

이²³⁾등이 우수, 열등집단을 대상으로 대학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적응, 교우, 건강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적 문제에 대해서는 우수집단이 비교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열등집단은 학업문제에 매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최²⁴⁾는 학력에 영향을 미치는 적응요인으로 학교생활 만족도, 경제, 건강, 가치관을 조사한

바 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간호학생의 대학생활 적응문제 즉, 대인관계, 진정한 친구를 사귀는 일, 대학생활의 자유로움을 조절하는 능력, 여가선용, 그리고 전공에 만족하며 생활속에서 성장을 꾀하는 일 등에서 지역간 평준화가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방간호 학생에게 있을지 모르는 재경 간호학전공 학생에 대한 선망의 감정은 무시해도 좋을 듯하다.

표 IV-2-1 학년별 적응차이

대상	특성	구분	인수	평균(점수)	F값	자유도	유의도
서울	적응	2학년	35	6.63	2.68	102	0.074
		3학년	34	5.88			
		4학년	34	6.62			
지방	적응	2학년	47	6.19	5.94	142	0.003**
		3학년	39	6.26			
		4학년	57	6.96			

** P<0.01

2. 학년별 적응차이

학년별 적응차이는 표 IV-2-1과 같다.

서울의 경우 2, 4학년의 점수는 거의 같게 나타났고(2학년:6.63, 4학년:6.62) 3학년은 그 보다 낮은 점수(5.88)를 보여주었는데 각 학년별 차이는

의미있지 못하였다($F=2.68$, $df=2,100$, $P=N.S.$).

지방을 살펴보면 2학년의 평균점수는 6.19, 3학년 6.26, 4학년 6.96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적응점수가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며, 그 차이는 유의하였다($F=5.94$, $df=2,140$, $P<0.01$).

이²⁵⁾의 논문에 의하면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학년은 3학년이며 그 이유는 교과목수가 너무 많고(28.1%), 간호학 이론적 체계가 결핍된 상태이며(14.5%) 학교강의와 임상실습의 차질로 오는 갈등(21.4%)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²⁶⁾의 논문 역시 간호대학생의 가치체계가 강의와 전공실습을 병행하는 3학년때 현저한 변화를 거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도 반영되고 있는 바 서울지역의 3학년 학생의 적응점수가 2, 4학년에 비해 낮다는 점이다. 이는 현장실습을 시작하는 시기로 변화된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3학년 학생들이 간호학 학습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실망감을 극소화시켜 학업성취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비해 지방 간호대생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3학년(29.3%)에 비해 4학년(35.3%)에서 간호학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았고¹⁴⁾, 고학년에 이룰수록 학리적 가치관은 저하되며 학생들이 추구하는 가치의 순서는 종교적 가치, 심미적 가치, 사회적 가치였다고 발표한 최²⁷⁾의 연구를 참고할 때 고학년이 될수록 인격의 성숙(maturation)²⁸⁾이 이루어지며 간호교육 역시 이를 뒷받침해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이²⁹⁾는 고학년일수록 간호직에 대한 긍정태도가 형성되지 못하고 간호교육이 학생의 가치관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상반된 견해를 제시하였다.

3. 적응과 제 변수간의 관계

(1) 적응과 제 변수간의 관계

표 IV-3-1은 적응과 제 변수와의 관계를 제표한 것이다.

서울에서 살펴보면 부의 연령과 학생들의 적응간에 순상관관계($r=0.20$)를 보인다. 또한 전과의사가 없는 학생이 전과의사를 갖고있는 학생에 비해 더 만족한 대학생활을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부의 최종학력이 국졸이하인 학생집단은 적응점수가 가장 높았고(6.94), 그 다음이 고졸(6.72), 중졸(6.10)순이었으며 대졸이상 집단(5.82)에서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공에 대한 사전지식이 있었던 학생은 없었던 학생보다 적응을 더 잘하고 있어서 각각 7.15, 6.16으로 그 차가 크다. 간호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보통으로 인지하는 학생(6.58)이 평균 점수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비우호적 수용(6.50)이었으며 우호적으로 수용하는 학생(5.38)은 적응점수가 가장 낮았다.

대학생활에의 적응에 관계하는 제 특성을 지방 간호학생에게서 파악해본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r=0.17$), 가족의 월평균 총수입이 낮을수록($r=-0.19$), 종교가 있는 학생집단이, 전과의사가 없는 학생에서 그리고 상담대상자로 스승이나 성직자를 택한 학생에서 적응점수가 높았다. 또한 전공지망 동기가 적성, 흥미로 인한 선택일때 만족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간호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우호적으로 수용하는 학생군이 비우호적 수용군보다 평균점수가 높았다. '간호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용도'에 대하여 서울의 경우, 우호적으로 수용하는 학생이 비우호적 수용 학생에 비해 적응에서 좌절을 겪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대학생활을 통하여 우호적 수용으로 강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우호적 수용으로 변한다고도 볼 수 있는바 지방학생에서는 이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의 연구과제로써 귀추가 주목된다고 하겠다.

박³⁰⁾은 적응에 관계하는 특성으로 부모생존 여부와 성장지를 보고한바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점을 밝힐수 없었다.

이³⁰⁾, 안³¹⁾, 조³²⁾, 이³³⁾의 연구를 보면 공통적으로 전과를 원하거나 간호학 선택 불만족의 이유로 적성에 맞지않고 흥미없음, 사회적 인식부족을 꼽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전공에 대한 사전지식이 있었던 학생, 적성, 흥미로 간호학을 지망한 학생집단이 적응을 잘 하고 있는 결과는 고등학교에서의 진학상담의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즉, 대학전공학과의 선택시기인 고등학교에서 간호학에 관계있는 욕구와 동기유발이 잘된 학생이 간호학과를 선택하도록 지도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필요하다.

표 IV-3-1 적응과 제변수간의 관계

대 상	제 변 수	No	\bar{x}	r·t 또는 F값	유 의 도
서 울	부의 연령			r=0.20*	0.025
	전과의사 있다 없다	47	5.57	t=-5.45***	0.000
		56	7.05		
	부의 최종학력 국졸이하 중 졸 고 절 대절이상	18	6.94	F=3.36*	0.022
		10	6.10		
		36	6.72		
		34	5.82		
전공에 대한 사전지식 유무 있었다. 없었다.	26	7.15	t=2.95**	0.004	
	74	6.16			
간호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용도 우호적 수용 보통 비우호적 수용	0	5.38	F=3.29*	0.040	
	52	6.58			
	51	6.50			
지 방	연령			r=0.17*	0.024
	가족의 월평균 총수입			r=-0.19*	0.031
	종교 있다 없다	79	6.82	t=3.16**	0.002
		63	6.14		
	전과의사 있다 없다	39	5.77	t=-5.06***	0.000
		104	6.80		
	상담대상 부모·조부모 형제·자매·친구 스승·성직자 상담대상 없음	25	6.96	F=3.53*	0.017
		93	6.38		
		14	7.14		
		10	5.80		
	전공지망동기 취업전망 적성흥미 학력고사 성적 기 타	44	6.52	F=5.65**	0.001
		23	7.17		
38		5.89			
38		6.74			
간호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용도 우호적 수용 보통 비우호적 수용	6	8.17	F=6.66**	0.002	
	97	6.56			
	40	6.18			

* P<0.05

** P<0.01

*** P<0.0001

또한 간호직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간호계 스스로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며 이 문제에 대면하여 간호학교에서는 학과나 학문에 대한 철저한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학생들을 적응시키고 학생들의 가치체계와 간호학문의 가치체계가 갈등없이 조화되도록 간호개념교육이²⁶⁾ 비교적 여유를 가질수 있는 1학년 시기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한편 자신의 상담자로 스승이나 성직자를 택한 집단이 적응점수가 높은점은 대학이 최종적으로 자신의 앞날을 설계하는 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교수와 학생의 관계가 밀접해야 된다는 것을 뜻하며 이는 현재 대학에서 실시하는 지도교수제의 활용과 학생과 교수가 좀더 많이 만날수 있는 상황이나 여건의 마련을 통해 해결될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학에서의 학문적 탐구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하지 않더라도 학생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이유를 추구하면서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존재가 되도록 하기위한 교양과목이나 삶과 관련된 교육이 균형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풀이된다.

(2) 대학생활 적응의 예측변수

대학생활에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상대적 중요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한 것이 표 IV-3-2에 나타나 있다.

서울지역에서 파악한 대학생활 적응의 예측변수는 전과의사 14%, 전공에 대한 사전지식 유무 4.7%, 간호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용도 3.8%였고, 여기에 가정의 분위기, 재수이상 경험, 써클활동 등 참여가 추가될때 24.6%를 설명할 수 있었다.

표 IV-3-2 대학생활적응의 예측 변수

대 상	제 변 수	R ²	R ² change	B	β
서울	전과의사	0.140	0.140	0.879	0.398
	전공에 대한 사전 지식 유무	0.187	0.047	0.351	0.185
	간호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용도	0.225	0.038	0.443	0.207
	가정의 분위기	0.240	0.015	0.226	0.113
	재수이상 경험	0.246	0.007	0.278	0.086
	써클활동 참여	0.246	0.000	-0.696	-0.028
	R ² =0.246 Adjusted R ² =0.198 F=5.08**				
지방	간호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용도	0.068	0.068	0.329	0.230
	가정의 분위기	0.117	0.049	0.379	0.212
	전과 의사	0.140	0.023	0.359	0.174
	전공에 대한 사전지식 유무	0.165	0.025	0.309	0.170
	재수이상 경험	0.180	0.015	0.279	0.113
	써클활동 참여	0.187	0.007	-0.304	-0.088
	R ² =0.187 Adjusted R ² =0.150 F=5.07**				

**p<0.01

지방학생의 경우 영향력이 가장 큰 변수는 간호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용도가 6.8%로 가장 크고 가정의 분위기 4.9%는 그 다음이었으며 전과의사, 전공에 대한 사전지식 유무, 재수이상 경험, 써클활동 참여가 추가되어 총 18.7%의 적응능력을 설명하여 주었다.

위의 결과로 부터 '가정의 분위기'를 고려할때 서울에서의 설명력이 1.5%임에 비해 지방은 4.9%로 차이를 나타낸다. 가정의 분위기가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지방학생에게서 더 높은 점은 이 지역의 가족 결속력이 더 강하고 이 영향이 학생에게 미치어 서울학생에 비해 지방학생이 가정적일

수 있다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한편 두 지역 모두 재수이상 경험이나 써클활동 참여와 같은 개인적 경험보다는 전공과 관련된 동기나 흥미, 태도가 대학생활에의 적응에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학교생활 만족도·전공 만족도 및 적응간의 상관관계

학교생활 만족도, 전공 만족도 및 적응간의 관계의 정도와 방향은 표 IV-3-3과 같다.

서울에서 전공만족도와 학교생활 만족도간에 0.497로 순상관관계가 존재하며 적응과 학교생활 만족도간에 0.855, 적응과 전공만족도와는 0.875의 순상관관계의 정도를 나타내었다.

지방에서 전공만족도와 학교생활 만족도간에는

0.345의 관계가 나타났고 적응과 학교생활 만족도간에 0.768, 적응과 전공만족도 사이에는 0.866의 순상관관계를 보였다.

두 지역의 대비에서 볼수 있듯이 지방보다는 서울에서 각 변수별 관계의 정도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적응에 관하여 서울학생은 학교생활 만족도나 전공만족도가 거의 같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음에 비해 지방학생은 전공만족도가 적응에 좀 더 크게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공간적 한계를 고려한 지방학생의 생활범위를 생각할때 대학생활에서의 관심이 자연히 전공쪽으로 더 많이 기울어질수 있음을 나타낸다고도 볼수 있겠다.

표 IV-3-3 적응과 제 변수간의 상관관계

	서울		지방	
	전공만족도	적응	전공만족도	적응
학교생활만족도	0.497***	0.855***	0.345***	0.768***
전공만족도		0.875***		0.866***
적응				

*** P<0.0001

V. 결 론

1991년 3월 11일부터 3월 23일 사이 서울 및 전라남·북도 소재의 국립대 간호학과생 총 246명(서울:103명, 지방:143명)을 대상으로 간호대학생의 지역별 적응차이를 파악하여 간호교육에서의 학생생활지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설문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간호대학생의 지역별 적응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2. 학년별 적응차이에서 서울학생은 3학년의 적응점수가 가장 낮았고 2, 4학년은 거의 같은 수준으로 3학년에 비해 높았으나 이 차이는 의미있지 못하였다.

지방간호대학생의 경우 학년이 올라갈수록 의미있게 적응점수가 높음을 나타내었다.

3. 대학생활에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상대적 중요성을 조사한 바 지방간호학생에서 가

정의 분위기가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재수경험이나 써클활동참여와 같은 생활속에서의 개인적 경험보다는 전공과 관련된 태도와 가치관이 대학생활을 보람있게 보내는데 더 많이 관계함을 알 수 있다.

적응에 대하여 서울학생의 경우 학교생활과 전공이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같은 수준이었으나 지방학생은 생활적 측면보다는 전공에 관한 사고가 적응에 더 깊게 관여하고 있음을 드러내었다. 특히 '간호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용도' 하나만으로도 서울학생에게서 3.8%, 지방학생은 6.8%의 설명력의 차이를 보여 주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간호대학생이 대학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학교생활 및 전공에 대한 개인적, 교육적 배경은 지역간에 어느정도 평준화가 이루어진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생들이 전공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전문간호사로서의 인격을 성숙시킴에 있어 간호교육은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있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학년간의 적응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간호학에 대한 사

회적 인식 및 우호적 수용을 높이기 위한 간호계의 관심이 요구되며, 대학의 전공학과를 올바르게 선택하기 위해서는 가치관이나 직업관에 대한 홍보차원의 계도가 고등학교 교사로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정범모, 교육과 교육학, 신교육학 전서 I, 서울:배영사, 1976, p.16
2. Shaffer, L.F., The Psychology of Adjustment, Boston:Houghton Mifflin Co., 1956, p.398
3. 최영희, 자아개념과 적응 및 학업성취와의 상관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3
4. 노혜숙, 일부 여자중학생의 자아개념 및 스트레스와 적응행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6
5. 박석순, 자아개념과 적응에 관한 연구, 심리학연구, 제5권, 1970, p.20
6. Kleinmuntz, An Extension of the Construct Validity of the Ego-Strength Scale,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4(5):463-464, 1960
7. 최계영, 간호대학생의 욕구구조에 관한 일 연구, 간호학회지, 4(1):38-46, 1974
8. 박춘자, 국립의료원 간호학교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위한 일 기초조사, 대한간호, 15(3):51-58, 1976
9. 라혜옥, 교육환경에 따른 간호학생의 가치관 연구, 대한간호, 26(5):69-80, 1987
10. 이은옥, 이미라, 간호학생의 학업성취에 관한 연구-대학간호학생의 심리적 제 특성과 학업성취와의 관계, 간호학회지, 3(7):53-65, 1972
11. 정문희, 임난영등,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학생측면의 기초연구-간호학과 학생의 자아개념과 교육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보건간호학회지, 4(2):35-57
12. 윤진, 간호학생의 가정환경과 성격특성에 관한 일 연구, 대한간호, 24(2):54-69, 1985
13. 한정석, 간호대학생의 학년별 태도변화에 관한 연구, 간호학회지, 3(2):121-132, 1973
14. 김조자, 전산초, 최옥신, 유지수, 전경애, 임상실습지도 방안개선을 위한 실험적 연구, 연대간호학논집, 제2집:1-24, 1978
15. 권경남, 간호전문대생의 임상실습현장에서의 역할수행에 관한 연구-실습의 내용빈도를 중심으로, 간호학회지, 13(3):1-33, 1983
16. 김수지, 김명희 등, 한국간호교육기관의 교육철학 및 교육과정 분석-4년제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대한간호, 18(2):162-188, 1988
17. 정연강, 김윤희, 양광희, 한경자, 한상임, 간호교육 철학정립 및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대한간호학회지, 18(2):162-188, 1988
18. 서봉연, 성격과 적응, 서울:익문사, 1977, p.11
19. 김인자, 적응심리, 서울:정민사, 1982, p.5
20. Lararus, R.S., Pattern of Adjustmet, New York:Mc Graw Hill Co, 1976,p.30
21. Levine, M.E., Adaptation and assessment:A rational for Nursing intervention, AJN, 66:2450-2453(a), 1966
22. Shaffer, L.F., The Psychology of Adjustment, Boston:Houghton Mifflin Co., 1956, p.398
23. 이수원, 장성수, 김재환. 대학에서의 학업성취요인에 관한 분석-학사징계학생과 우수학생의 특성 비교-, 대학생활연구, 4:5-64,1986
24. 최명애, 학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간호학회지,7(1):80-87, 1977
25. 이연순, 간호교육과정의 개선을 위한 일 조사 연구, 간호학회지, 4(2):67-77, 1974
26. 이경혜, 하영수, 간호개념교육이 학생들의 간호개념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적 연구, 간호학회지, 13(3):95-105, 1983
27. 최양자, 간호학생들의 가치관에 관한 연구, 연대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6
28. Stauffacher, James C. and Navran Leslie, Prediction of subsequent professional activity of nursing students by E.P.P.S., Nursing Research, 17:256-260, May-June, 1968
29. 이경혜, 간호대학생의 가치관과 가치관 변화에 대한 연구, 간호학회지, 15(3):21-30, 1985
30. 이은옥, 우옥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학생들의 입학전 제 특성 및 태도와 입학후 갖게되는 전문간호직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 대한간호, 10(7):25-37, 1971

31. 안선주, 간호교육에 대한 간호학생들의 태도조사, 중앙의학, 29(5):521-530, 1975
32. 조경순, 간호교육에 대한 일부 간호학생들의

- 태도조사, 대한간호, 16(6):56-70, 1977
33. 이정숙, 간호학생의 간호학 선택에 대한 태도 조사연구, 중앙의학, 42(1):49-57, 1982

<ABSTRACT>

A Study on Regional difference of Campus Life Adaptation on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in National universities.

Sun Ha Choi (Department of Nursing, Won-ju National Jr. College)

Nan Young Lim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Han Yang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ovide information of effective student guidance in nursing education.

The sample consisted of 103 nursing students in the area of Seoul and 143 students in Cholla Province.

Data were collected by using a questionnaire, which consisted of items about personal campus life and their major.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re was on significant difference in campus life adaptation on nursing students between Seoul and local areas.
2. In Seoul area,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campus life adaptation according to academic years. In local area, significant difference was revealed in the academic years. The scores of campus life adaptation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ir academic years.
3. The variables which can be explained in the regional difference were social recognition of nursing and a family atmosphere.

In conclusion, the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 that, in Seoul and local areas, the personal and educational backgrounds of campus life adaptation were equalized. In addition, it is very important that the counselling on choice of major should be provided to high school students.